

# 마이산 · 용담호 비경부터 수몰마을의 기억까지 담다

진안군 · 전북문화관광재단  
2026 진안방문의 해 맞아  
전주하안양옥집서 특별전시  
지역상징 콘텐츠 시각적 구성

진안군은 '2026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 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4월 12일까지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 하안양옥집 복합문화공간에서 기획전시 '미중, 진안'을 개최한다.

전주 하안양옥집에서 만나는 '진안'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진안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은 도심 속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진안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비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 공간은 △마이산의 신비로운 능선 △진안 용담호의 고요한 풍경 △지역 대표 축제와 문화자원 등 진안을 상징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구성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진안 용담호사민문화관의 소장 작품을 연계해 눈길을 끈다. 마이산과 진안 용담호, 고원 풍경 등을 현대적인 일러스트 작품으로 재해석해 관람객들이 진안의 자연을 보다 감성적이고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담별 건설로 물 아래 잠든 마을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을 함께 담아내



진안군은 2026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오는 4월 12일까지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 하안양옥집 복합문화공간에서 기획전시 '미중, 진안'을 개최한다. (사진=진안군청 제공)

며 지역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진안군 공식 캐릭터 '빠망'과 진안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진안 사계절 일러스트 캐릭터 '너비'를 활용한 포토존과 공간 연출을 마련해 어린이와 젊은 세대 등 연령층이 진안의 매력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진안군은 과거 도지사 관사를 재단장에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하안양옥집'에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진안 방문의 해'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경림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전시는 도심 속에서 진안을 만나는 특별한 문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진안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획전은 무료로 운영되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주민 소통 · 문화 체험 아우르는 복합공간

무주군, 최북미술관 내  
그림책 전시실 등 조성

무주 최북미술관이 주민 소통과 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무주군은 최북미술관 내 '뮤지엄 라운지'와 '그림책 전시실'을 조성하고 17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다.

조성된 공간은 주민 휴식과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카페 형태의 '뮤지엄 라운지'를 비롯해 '그림책 전시실', 미술관 브랜드를 활용한 기념품 판매하는 '굿즈숍' 등으로 구성됐다.

개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무주교육지원청과 지역이동센터, 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플루트 앙상블 공연과 테이프 커팅식 전시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또 시설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하유진 학생과 황순우 자원위원이 각각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았다.

뮤지엄 라운지는 총 6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일부 공간은 대한노인회 무주지회가 시니어 사업단을 통해 커뮤니티 카페로 운영한다.

지역 어르신들은 카페 운영에 참여해 음료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무주군 최북미술관 내 조성된 '그림책 전시실'. 현재 이곳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시민운영과 교육을 거쳐 운영 준비를 마쳤다.

그림책 전시실에서는 현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전시가 진행 중이다.

전시는 고전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구성됐으며,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도 함께 운영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세대 구분 없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미술관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찾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정희 무주군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장은 "이번 공간 조성을 통해 최북미술관을 전시 중심에서 체험과 소통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아동 문화 체험 기회를 동시에 확대하고 김원태 문화관, 무주상상번디미술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무주=손홍기 기자

## 군산문화관광재단, 홍보기자단 위촉식 개최

글 · 영상 분야 20명 선발... 재단 사업 · 문화행사 현장 취재 본격 나서

군산문화관광재단은 17일 재단 회의실에서 '홍보기자단 위촉식 및 안내행사'를 개최하고 홍보기자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산문화관광재단 홍보기자단은 총 20명으로, 글쓰기 분야 12명 영상 분야 8명이 선발돼 활동하게 된다.

홍보기자단은 앞으로 재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문화행사 현장 등을 취재하고 기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해 재단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

(SNS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단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보기자단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재단 주요 사업 및 홍보 방향에 대한 안내, 기자단 활동 내용 설명, 홍보자료(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 전달 등이 진행됐다.

또한 기사와 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취재 원칙과 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군산문화관광재단 홍보기자단이 제작



한 취재 콘텐츠는 재단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2)

### 옹기장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명희와 그 가족들 시선이 걱정되었다. 선운사에 남아 있는 명희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무거웠지만 남존으로서 지금 당장 명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가족들 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었고, 또 자신의 부모와 동생들의 가모는 어떤지 돌아보고 싶었다.

옹기장이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루만 집에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받은 후 곧장 걸어서 무장원으로 향했다.

30여 리를 걸어서 먼저 봉림에 도착해 아버지 강병도와 어머니 신동래의 가묘와 동생들의 묘지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눈물이 나와 잠시나감도 있을 수 없어 얼른 자리를 떴고 바로 황전으로 가서 바삐 성이 아닌 타성 사발을 붙잡고 지난 3월의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는 어디에 있으며 명희의 아버지 박규휘와 어머니 연기택, 동생들의 묘지의 소재를 물었다.

역시 가묘를 만들었는데 명희의 부모님과 동생들의 가묘가 어디에 있는지는 가묘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가묘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자 바삐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다.

남존은 그들을 찾아갈 수는 없었다. 강제인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것인데 틀림없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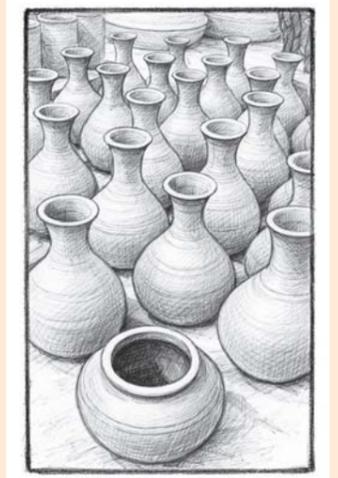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가묘는 공동묘지를 이루고 있었다. 다행히 가묘 앞에 비복으로 나와 묘의 주인이 표시되어 있어 남존은 100여 기의 가묘를 훑어다니다 명희의 부모님과 동생들의 묘를 찾을 수 있었다.

남존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죽음을 안긴 사람은 다른 아닌 자신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그는 명희의 부모님과 동생들의 묘소에서 영영 눈물만 흘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그곳을 떠났다. 언젠가 세상이 평온해지면 그때 돌아와 묘지를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옹기장이 집에서 남존이 할 수 있는 일은 힘을 쓰는 단순한 일이었다. 닭구이를 끌고 가서 옹기장이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흙을 퍼 실고 가져와 습도와 햇빛이 적당한 장소에 적재했는데, 두리 1년이나 숙성을 시킨다고 했다.

옹기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오랜 수련기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가마에 굽기 전 옹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잘 치면 흙을 한쪽이 긴 판으로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만들어 그 판을 쌓아끼며 항아리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손기술이 여간한 게 아니었고 긴 훈련기간이 필요했다.

견습생인 남존은 산에서 유아유를 만드는 재료인 약초를 파오거나 짚이 좋은 숯을 채취해오는 일을 했는데, 유아유 형태를 갖춘 항아리를 적당한 환경에서 건조한 뒤 항아리 바깥에서 안으로 공기는 통하고 안에 내용물을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위해 비르는 것이다.

유약을 바른 항아리는 가마로 들어가 하루 내내 불로 흠뻑 사를 한 뒤 천천히 식혀 완성품이 되는 것이다.

남존은 구슬땀을 흘리며 매일 매일을 보냈다. 이곳에서 항아리를 만들며 일평생을 보내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언제건 기회가 되면 장구도 치고 쟁과리도 치면서 굿패를 벌여보려는 작은 희망을 가져보면서 가끔 피리를 꺼내 불어보기도 했다.

피리를 불 때면 피리 음을 따라 명희의 얼굴이 흘러갔다. 지금쯤 명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림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더 안 좋아졌는지 아니면 회복되었는지 역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옹기를 내어 선운산으로 올라가 명희를 찾아볼까하는 무모한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 국립국악원 창작악-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남원에서 전통 성악·기악으로 협연 펼친다

28일 국립민속국악원서 '하나되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이 함께하는 '하나되어'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 공연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국악관현악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이 함께 꾸미는 협력 무대로 전통 성악과 기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협연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 성악의 정수인 정가(正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전북 무형유산 시조창(원제) 보유자인 임환명인이 김아성 편곡의 성악과 관현악 우조시조 <월정명>, 남창기곡 <편수대업>을 협연한다. 선비들의 고고한 정신이 깃든 시조와 가곡이 웅장한 국악관현악과 만나 어떤 장엄한 감동을 자아낼지 기대를 모은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들이 함께 협연하여 경기·서도·남도 민요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협연곡으로 대금 명인 원장현이 구성한 독주곡 <출산조>를 바탕으로 국악관현악과 함께 대금·소금·가야금에 어우러진 3중주 협주곡<무산향>이 연주된다. 국립민속국악원 창작악단 소속의



서은영(가야금), 최혜림(아쟁), 김용수(대금)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나서 섬세하고도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김기범 편곡의 '세계재즈기행'은 국악 관현악으로 세계 각국의 재즈 음악을 표현하는 이색적인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공연의 대미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곡들로 장식된다. 김백찬 편곡의 <아리랑, 희망가는> 김정훈(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재해석되어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으로, 최경만 구성, 계성원 편곡의 '국악관현악과 호적을 위한 <호적풍류>'가 연주된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